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축 사

'23. 5. 12.(금) 10:00 / 거래소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II . 뉴노멀(New Normal) : 지속가능한 성장, 고령화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는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의 3번째 행사로,
자본시장의 뉴노멀(New Normal)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노멀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하며,
주로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코로나 팬데믹(2020년)을 겪으면서,
이제는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된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세계화의 가치 아래 증가했던 교역량은
경제·지정학적 분절화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에너지 위기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은
어느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규범(norm)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은
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제 사회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 분야에서 촉발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담론은
사회적 가치(S), 지배구조(G)와 같은 분야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Ⅲ.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첫 번째 주제는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ISS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미나를 포함하여

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분기내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째,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을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하여,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ESG 공시 의무화 일정 : ('25년~) 자산 2조원 이상 → ('27년~) 자산 1조원 이상
→ ('29년~) 자산 5천억원 이상 → ('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그 외에, 자산 규모가 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공시기준을 제시 → 여타 분야(기타 E 분야, S·G
분야)로 확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공시제도에
순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ESG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ESG 공시 정보에 대한
독립 기관의 검증(assurance)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공시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하는 한편,
공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V.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두 번째 주제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입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1인당 적립금도
약 5,000만원 수준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레벨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마치 ‘퇴직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실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퇴직연금 운용·인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상반기에 추진할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에 반영하여,
퇴직연금이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V. 맺음말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지속가능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치 흐름을
자국 경제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leverage)로 적극 이용 중입니다.

* EU는 가장 선제적·포괄적으로 ESG 공시 강화, 공급망 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 → 역내 기업, 對EU 수출·협력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 자본시장, 그리고 금융투자업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통찰력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